

‘완도 방문의 해’…관광객 유치·경제 활성화 동반 견인

667만명 방문…전년比 62만명 ↑

‘완도 치유 페이’ 지역상권 활기

내년부터 사업 규모·대상 확대

생산유발 효과 200억원 ‘홀쩍’

완도군이 아침 차게 추진한 ‘2025 완도 방문의 해’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반 상승을 견인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7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 완도 365, 힐링 완도 365°C’라는 슬로건 아래 차별화된 마케팅과 이벤트를 전개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집계 기준 지난 10월까지 완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667만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62만명 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흥행의 일등 공신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완도 치유 페이’ 정책이 꼽힌다.

‘완도 치유 페이’는 관광객이 완도 내 숙박업소,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인증하면 사용 금액에 따라 혜택을 지원하는 관광 정책으로,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쿠폰이나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 정책은 관광객들에게는 여행 경비 절감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안겨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5천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참여 인원만 4만3천명에 달해 이 기간 지급된 지원금 규모도 20억원을 훌쩍 넘겼다.

소비 분석 결과도 고무적이다. 11월 기준 관광객들의 총 소비액은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광객의 직접 소비한 금액이 45억원, 지급받은 치유 페이를 재사용해 발생한 소비가 15억원으로 지원금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3월 열린 ‘완도 치유 페이’ 첫 번째 관광객 환영 행사에서 이용객에게 쿠폰을 전달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됐다.

주요 소비처를 살펴보면 식당이 35.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특산물 구매(31.6%), 숙박업(29

%), 카페(3.6%)가 뒤를 이어 관광객들이 단순히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도에 머물며 먹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을 즐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5일 강진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다산청렴교육 업무협약식’에서 강진군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모여 협약서를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수도권 교육 공직자에 ‘다산 청렴’ 전파

구리남양주교육청 MOU…연수 정례화

교직원 대상 교육·가족캠프 등 추진

강진군이 다산 정약용의 청렴 정신을 수도권 교육 현장에 전파하기 위해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손을 맞잡았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수실에서 강진 원 군수와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청렴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의 교육대상을 수도권 교육 공직자로 확대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 교사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연수를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학학 기간 다산가족캠프 운영, 학생·교사 맞춤형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우수 교사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앞서 진행된 시범 운영도 호응을 얻었다. 지난 17~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무원 푸소 특화 과정’에는 구리남양주 행정실장 및 교장단 66명이 참여해 2박3일 동안 강진의 청렴 문화를 체험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다산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강진은 청렴 교육의 최적지”라며 “이번 협약

이 우리 공직자들이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청렴 교육의 중심지인 강진에서 수도권 교육 공직자들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청렴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의와 농촌 체류를 결합한 강진군의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은 올해 15기 운영을 끝으로 오는 28일 마무리된다. 올해 총 1천27명이 참여해 약 3억7천만원의 교육 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관내 숙박과 식당 이용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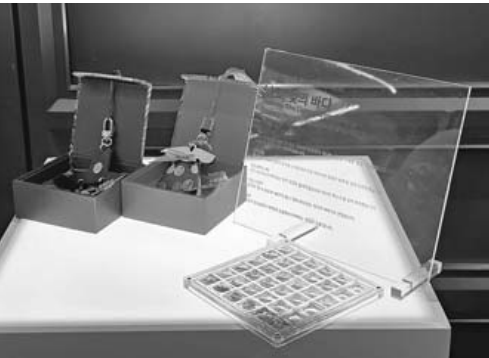
“진도 전복껍데기의 변신”…관광두레 기념품 선정

주민사업체 ‘진도, 온’ 전국대회서 우수작

버려지던 전복 껍데기를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진도 주민사업체가 전국 대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주민사업체 ‘진도, 온’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에서 관광두레 공식 기념품 분야 최종 선정작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주민사업체가 만든 창의적인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본선에서 전문가



‘진도, 온’의 작품 ‘남도, 빛의 바다’ 모습. 〈진도군 제공〉

와 관람객 투표를 거쳐 경합을 벌여 ‘진도, 온’을 포함한 최종 5개 팀(기념품 2팀·체험 3팀)이 우

수작의 영예를 안았다.

‘진도, 온’은 광주 남구 컬러브릿지협동조합과 협업해 기념품 ‘남도, 빛의 바다’를 출품했다. 이는 버려진 전복 껍데기를 가공해 만든 ‘근대 의상 열쇠고리’와 ‘전복빛 브로치’로, 친환경적 가치에 근대 문화유산의 멋을 입혔다는 호평을 받았다.

선정된 업체는 내년 관광두레 사업과 연계한 우선 구매 지원과 관광 여행 상품 지정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김은주 진도군 관광두레 PD는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진도 주민사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관광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신안군, 전남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영예

찾아가는 서비스·1대1 맞춤 케어 호평

신안군이 섬 지역 특성에 맞춘 촘촘한 치매관리 서비스로 도내 최고 수준의 행정력을 입증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흥군에서 열린 ‘2025년 전남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군 치매안심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

남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실적, 공공후견사업 성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신안군은 지리적 제약이 많은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14개 읍·면과 낙도 지역 23개 보건진료소까지 직접 ‘찾아가는 선별검진’

과 예방 교실을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등록 환자에게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체·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1대1 맞춤케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열악한 섬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안심 섬’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해남군 겨울철 AI 유입 차단 방역 ‘총력전’

영암호 야생조류 검출…통제 강화

해남군이 최근 확산세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겨울철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 화성과 충북 영동 등에서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근 영암호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 2곳과 농장 초소 3곳을 가동하고, 진출입로 32곳에 생석회 차단 벨트를 구축해 바이러스 이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또한 거점 소독시설과 가축질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초동 대응 태세를 갖췄다. 특히 군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파 기간

에 소독 효과가 저하되는 점을 우려해 축산 농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부득이한 진입 시에는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쳐 차량 2단계 소독 등 총 3단계의 소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동파 방지를 위해 소독기에 열선을 설치하고, 저온에서도 효과가 좋은 산화제 계열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동절기는 방역 여건이 열악해지는 만큼 농가의 자발적인 차단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와 진입로 생석회 도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남=박팔용 기자



목포시의회, 내년 업무추진비 40% 대폭 삭감

재정 위기 극복 동참…의장단 ‘교통 분담’

국외연수비 반납 등 민생 안정 예산 확보

목포시의회와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27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장단 회의를 열고 목포시의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내년도 의장단 업무추진비 등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의 40%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이번 조치는 세수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삭감되는 예산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천 280만6천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 등이다.

앞서 시의회는 올해 공무 국외연수비 1억2천만원을 삭감해 반납하기로 한 바 있으며, 내년 예산에서도 국외 연수비 등을 줄여 긴급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으로 돌릴 방침이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소 ‘색깔별 신분증’ 도입

공인중개사 파랑·보조원 노랑 구분

함평군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신분증을 색상으로 구분에 발급한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20곳의 종사자 22명에게 새로운 명찰형 신분증을 배부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신분증으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어려워 발생할 수 있

는 이용객들의 혼란을 막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신분증은 공인중개사는 ‘파란색’, 중개보조원은 ‘노란색’으로 바탕색을 달리해 누구나 한눈에 직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명, 사진, 업소명,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 신뢰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신분증 도입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초과 행위나 무등록 중개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성학 기자